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March 14 2025 Vol. 952

동행과 상생, '교육부 폐지'가 몰고올 변화와 대처 방안

헤드 스타트 ECRES 전문 교육가 킴벌리 김 전도사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미래를준비하는'동행과상생포럼'이10일(월)오전11시30분미주복음방송공개홀에서개최되었다. ⓒ기독일보

지난 3월 10일, 미주 한인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행과 상생 포럼'이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60여 명의 목회자의 참여 아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포럼은 미주복음방송과 동행과 상생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의 환영 인사와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이상명 총장의 축사 및 기도로 시작되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킴벌리 김 전도사(Lighthouse Mission Church 교육부 디렉터)가 나서,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 학교"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킴벌리 김 전도사는 헤드 스타트 ECRES 전문 교육가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병원에서도 일하고 있다.

그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국립대학은 사관학교 뿐이다."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18개 부서 중에서 가장 작은 부서로 1979년 지미카터 대통령 때, 해비타트 하우징 프로그램과 접목되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낙후된 학교시설을 새롭게 하는 의도에서 창설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 아이당 지원되는 비용은 가장 많은 데 학습능력이나 교육의 질은 40위 밖으로 밀려났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보수진영에서 계속 나왔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의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폐지할 수 있으며,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

"미국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 이원화 체제이다. 연방정부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이틀 I를 지원하고, 학교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FAFSA 등 자금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 펼친 JAMA 설립자 김춘근 박사 별세

JAMA 설립자 김춘근 박사가 3월 10일 오전 8시 39분경(현지시간) 85세로 소천받았다.

JAMA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춘근 박사(Dr. John Kim)가 그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됐다는 소식을 무겁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전한다"며 "그는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온 마음과 정신, 영혼, 힘을 다해 지치지 않고 섬겼다"고 애도했다.


故 김춘근 박사

그러면서 "우리는 김 박사의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눈으로 봤고, 그가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에 있으며, 이 선하고 충실한 종이 주인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전했다.

1939년생인 김춘근 박사는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서 미국 내 3개 대학에서 4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또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GLDI)을 설립해 차세대 리더 양성에도 힘썼다. 김춘근 박사는 경희대를 거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페퍼다인대와 알래스카 주립대, CSUMB 등에서 교수로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다.

1976년 간 경화와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기면서 회심한 후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했다. 1985년 기도 중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비전을 받은 그는 미국 각지의 350개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회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1993년 미 동부에서 열린 대학생 청년 비전 컨퍼런스 후, 하나님으로부터 "각성! 각성! 각성!"이라는 마음을 받고 기도와 연구를 시작했으며, LA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던 중 엄청난 비전을 보게 됐다. 이를 통해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미국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고 JAMA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신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돼 합병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젊은이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는 말씀을 전하며 젊은 세대에게 비전과 열정을 갖고 미래를 개척할 것을 권면하곤 했다.

천국환송예배는 오는 17일 5시 텍사스 린데일(Lindale)에 위치한 JAMA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JAMA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하나님 약속으로 붙들고 이 땅에 대한 오너십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 그리스도의 대사를 키우며, 이 땅을 영적·도덕적으로 살리기 위한 회개와 기도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JAMA는 먼저 그리스도인인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그리고 이 나라의 죄(느헤미야 1:6)를 회개함으로 교회, 커뮤니티, 도시, 미국 더 나아가 온 세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부흥과 회복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윤준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윈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나성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총회 희년 감사
복흥성회

| 강 사 |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목사
REV. DR. YOUNGHOON LEE
YOIDO FULL GOSPEL CHURCH
SENIOR PASTOR
일시: 2025. 3. 24(월) 오후 7시 30분
강사: 이영훈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본당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50주년 정기총회
FULL GOSPEL WORLD MISSION ASSOCIATION
THE NORTH AMERICA COUNCIL
50TH ANNIVERSARY

“80주년 광복을 앞두고 ‘통일 한국’ 위해 기도하자”

2025년 8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8.15 80주년 기념 모임을 위한 기도회가 11일 오전 11시에 바이올라대학 김스 다이닝 홀(Kim’s Dining Hall)에서 열렸다.

통일한국, 남가주교협 등의 주최 및 후원으로 한인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한 이번 모임에는 384일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토니 김 선교사가 북한 실정에 대해 간증하고, 남가주교협 회장 샘신 목사와 OC교협 회장 이창남 목사 등이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바이올라 대학 애디 변(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 팀 창 교수(Liberty University, 통일한국 기도회 운동 설립자) 등이 메세지를 전했다.

팀 창 교수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동북지역- 연길, 심양, 베이징에서 북한 선교사로 사역하며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미국의 한인교회들에게 북한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 한국을 위한 기도회가 11일 오전 11시에 바이올라 대학에서 열렸다. 남가주교협, OC교협, OC전도회연합회 등 교계 단체들과 통일한국 운동에 동참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는 “미주 한인교회가 북한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며 “저는 광복 80주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SNS과 모든 방해 요소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자유케 하시고, 한반도가 하나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간청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샘 한 목사, 제임스 조 교수, 남가주교협 심진구 목사, OC전도회연합회 윤우경 권사 등이 8.15 광복절 80주년을 준비하는 기도회를 이끌었다.

김민선 기자

“정책 변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

➔1면기사 ‘동행과상생’ 에이어서

그는 주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강화되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홈스쿨과 차터 스쿨 같은 대안 교육 방식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며, 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활용해 기독교 교육을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가 입시에 끼칠 영향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보수성향의 주에서는 SAT와 ACT 등 표준화 시험이 강조될 것이고,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 진보 성향의 주들은 표준화 시험을 폐지하거나,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써서 추천서나 에세이 등으로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뽑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회학교에 STEM 교육 도입해야

이어서, 교육계의 변화를 통해 교회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커리큘럼을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며, 교회학교에서도 STEM 교육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전문가들과 합작해, 아이들이 직접 그래픽화 하고, 게임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복음에 대한 책자를 잘 만들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관건

“학제 평가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과 얼마나 인터랙션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 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의 주인공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들의 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터랙션이 주일학교에서도 일어나야 하지 않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주일학교에 도입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세상에 있는 학교가, 학생과 선생님의 친밀한 관계에 중시하고 가고 있는데, 교회 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선교 전략: 십대의 필요를 찾아 채워주기

영 라이프 무브먼트(younglife.org)는 1940년대 텍사스에서 시작된 지역 커뮤니티 무브먼트로, 한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안오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너츠 한 박스를 갖고 학교를 찾아간 게 이 운동의 시작이다.

“중학생, 고등학생 영 틴 맘들이 있다. 저희 아래도 50명의 영 틴 맘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거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돕는 일이 영 라이프가 하는 일 중의 하나다. 어느 날, 한 아이에게 ‘아기가 아프고 자기도 아픈데 장을 봐 줄 사람이 없다’고 연락이 왔다. 당시, 저는 불이 났던 알타데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불이 나서 정신이 없던 상황이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드렸다. 목사님이 필요한 물품을 사서 그 자매의 집 앞 마당에 놓고 갔다. 다음에 샌드위치를 사서 자매를 방문했다. 우리가 교회라고 설명했더니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겠다고 했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헤드 스타트 ECRES 전문교육가, 라이트하우스 미션 처치 교육부 디렉터인 킴벌리 김 전도사. ⓒ기독일보

“신발이 필요하면 찾아서 보내드리고, 기저귀 채우는 법을 모르면, 가서 가르쳐 준다. 아이들의 필요를 찾아서 지역 학교와 연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는, 교육부 폐지 등, 정책과 상황의 변화가 있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호소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 한 명과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요한복음 3:16 절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저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날 그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다.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찾아다녔다.”

“아이들이 신실하게 예쁜 마음을 갖고 온다. 한 명이, 17명의 인원으로 9개월 만에 늘어났다.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품고, 세상을 품고 커뮤니티를 품고, 그리고 돕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신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막대한 돈으로 공략하면서 비영리 기구들을 공략하고 다닌다. 교회를 잘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육 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이란 주제로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와 송한미 전도사가 LA 한인타운 내 한인교회의 현실에 대해, 오윤태 목사(순 무브먼트 글로발)가 주일학교 현황 및 2세들의 신앙에 대해 간증했다.

오윤태 목사는 한인 2세 대학생과 청년들이 디아스포라로서 겪는 아픔을 이야기하며, 이 아픔이 하나님을 찾는 접촉점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한인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헌신과 기도가 2세들에게 깊이 남아 있다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많은 한인 청년들의 부흥을 목격하고 있다고 간증했다.

동행과 상생(Together and Th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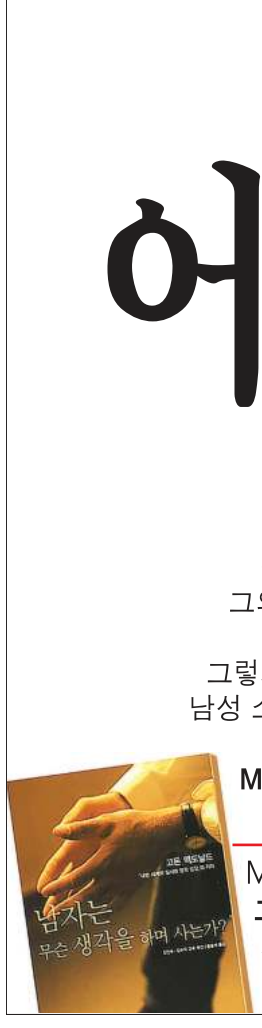
한인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된 ‘동행과 상생(Together and Thrive)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평신도 사역자 양성, ▶교육 리소스 제공 ▶ 교회 사역을 연결하고 지원 ▶ 2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 및 사역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대표에는 한기홍(은혜한인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사무총장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상임이사 이영선 사장(미주복음방송),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손경일 목사(새누리교회), 이상명 총장(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벤자민 신 교수(탈봇신학교), 사무국장 이세영 목사가 함께 하고 있다.

교회 안의
남성사역
어렵지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 하세요.

The Lord is giving us the Answer!



“My Journey”의 저자 Patrick Morley 목사는 평생 남성사역을 연구해온사역자로서 그의 수많은 저서와 경험을 총정리하여 펴낸 책 My Journey를 통하여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남성 사역과 남성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My Journey의 한글판 “내 삶의 여정” 이병일 목사 번역

MIM Korea가 참석자에게 드리는 특별선물 고든 맥도날드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등록 선착순 30명 한정



남성사역 컨퍼런스
강사 이병일 목사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소: L.A. 사랑의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Olympic과 Elden
참가비: 무료 / 샘플교재 및 점심제공
주최: Man in the Mirror Korea
대표 이병일 (Bryan Lee) 목사
(213) 435-6009 / bryanleemog@yahoo.com
주관: 기독일보 (213) 434-1170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

ANC 온누리교회 창립 29주년 말씀 집회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가 9일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말씀집회 주일 2부 예배에서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양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강조했다.



양춘길 목사. 그는 "이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일보

그는 "믿음의 거장들, 즉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평범한 인간들임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다윗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큰 죄를 지었다"며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다. 믿음이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다.

양 목사는 또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기적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며 "기적은 기적일 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예로 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적을 이루신다"며 "기적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음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야 한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그가 오시면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다. 생각이 떠오르려면 읽어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는다"고 설교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WMU 뉴욕 목회 세미나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3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에서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이란 주제로 뉴욕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목회와 설교(김영길 목사), 목회의 영성(남종성 교수), 목회의 지혜(김영길 목사), 목회와 가정(최윤정 교수), 목회와 소그룹(신선묵 교수), 설교의 실제(임성진 총장)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영길 목사는 '목회와 설교' 발표에서 본문 설교의 중요성과 성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귀납적·연역적 설교 방식을 설명하고설교 아웃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며, 설교 이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의 지혜' 발표에서는 목회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연약함을 발견하고, 설교와 영성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며,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선교 비전을 제시하며,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남종성 교수는 '목회의 영성' 발표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 공동체를 세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정리하고, 바울의 영성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남종성 교수(WMU 신약신학).

최윤정 교수는 '목회와 가정' 발표에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통전적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며,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부모는 리더, 멘토, 상담가 등의 역할을 해야 하며, 한인 이민자들의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교수(WMU 실천신학).

신선묵 교수는 강의 '목회와 소그룹'에서, 소그룹 공동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실천적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다. 교회는 신자들이 단순한 예배자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인 훈련과 소그룹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비된 지도자는 신자들을 돌보고, 시대에 맞는 사역 구조를 통해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선묵(WMU 선교학 및 리더십).

임성진 총장은 '설교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네 페이지 설교는 네 페이지 설교는 성경 본문과 적용을 네 가지로 나누며 문제, 복음, 현대적 문제, 현대적 희망으로 연결시켜서 신앙과 삶의 적용을 돕는다. '놀람에서 발견 설교'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통해 청중이 신앙적 통찰을 발견하게 하고 흥미로운 반전으로 청중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경 본문을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플롯과 움직임 설교'는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여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성경 메세지를 전달하여 청중이 이 이야기를 흐름 속에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비판적 성찰 설교'는 비판적 사고를 거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설교를 구성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윤준 기자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와 절대 오지 않는 교회

포모나 언약교회(장수영 목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필라안디옥교회 원로 목사이자 PGM선교회 국제 대표인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2025년 춘계부흥회를 진행했다.

둘째 날 저녁 5시 호성기 목사는 "선교적인 교회로"(벧전 2:9-10절)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이끌며 이 시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7학년 2반으로 소개한 호성기 목사는, "7학년 2반이 올해도 열 나라 이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시니어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교를 시작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30년 전에 가서 아내, 아들 둘을 놓고 한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시작했다. 성도가 저까지 전부 4명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 있고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것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한 사람을 잘 기르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꾼다."

"내가 변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한다, 이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화두였다."

그는 "교회 부흥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라며, "갈렙도, 엘리야도, 그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원로목사, PGM 선교회 국제 대표). ⓒ 언약교회 Youtube 스크린샷

시대착오적이고 진부한 교회에 청년들 매력 못느껴
자기 생명을 바칠만한 고귀한 가치의 부재
토요일 저녁 다리미로 돈을 다렸던 것 처럼, 예배 준비해야

세상은 빠르게 변하나, 교회는 여전히 농경시대적

이어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교회는 여전히 농경시대적방식을 고수한다며, 젊은 세대를 교회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세일즈'에서 '마케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안 되는 데가 교회이다. 교회가 너무 진부해져 청년들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한국에 개신교 교회가 5만 4천 개 정도 있었다. 코비드 가운데 만 개가 없어졌다. 코비드 전에 미국과 캐나다 북미주에 한인 교회가 4,300여 개가 있었는데 코비드로 1,700개 교회가 없어졌다. 왜 없어졌을까?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코비드가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흔들린다."

"제가 24살에 예수님을 믿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영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영적인 혜안을 가지고 있는 거장들은 1980년대부터 미국은 세속화가 되었고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로잔대회가 열렸을 때, 랄프 윈터 박사는, 선교의 초점이 국가에서 종족과 부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집합을 부족이라 하고, 종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계급에 속한 이들을 말한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다. 같은 똑같은 인도 사람이고 언어도 같은데 브라만(사제), 크샤트리아(왕족, 무사), 바이샤(서민), 수드라(노예) 종족이 있다. 언터처블스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분뇨를 치우는 일, 남의 옷 빨아 주는 일 밖에 못하고 다른 사회 계급과 결혼도 못 한다."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

"포드 자동차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다른 초이스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때, 아담이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아담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생산자가 시장을 컨트롤 못한다. 10대, 20대, MZ 세대에게 과거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호소력이 없다. 그것이 마케팅이다.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려면 50년대, 60년대 농경문화에서 정착된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젊은이들이 계속 몰려오는 교회가 있고 절대 오지 않는 교회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접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는 고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을 중심으로 미주와 캐나다의 목회자들이, '왜 젊은이들이 한인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 나눴다. "서베이 결과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전통적 한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꿈이 생기지 않고, 내 인생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10명 중 9명이 교회를 떠난다."

매일 하루에 두번씩 가정예배를 드린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 나누며, "이것이 청교도가 미국 땅에 와서 한 것이다. 위대한 미국의 신앙인은 다 가정예배에서 길러졌다"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가정이다. 제가 24살 때, 아버지가 '나는 교회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쏟아지게 받는데, 너는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제 앞에서 우셨다.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려고 교회에 나간 그날 성령을 받았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며,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며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카메론 타운센드, 도날드 맥가브란의 예를 통해, 젊은이들은,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깃발을 날려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캐리가 만든 소책자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 선교단체가 25개가 생겼다. 한 구두수선공이 한 나라를 바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살길이 열렸다. 허드슨 테일러는 좋은 교회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종교인을 보고 모래사장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눌 24명만 주신다면 중국 내지에 들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대학생 10만 명을 일으켜 주셨다. 하버드 총장이 졸업식에서, '왜 젊은이들이 자꾸 흩어지는가, 그것은 젊은이들이 자기 생명을 바칠만한 깃발을 날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생명을 바칠 고귀한 가치가 있는 부르심에 10만 명이 반응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에 담긴 영적인 함의를 통해 언약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했다.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뿌린 씨앗

"디아스포라의 'dia'는 Through, by라는 뜻의 헬라어 접두어이고, 'spero'는 seed를 의미한다. 이곳에 여러 다민족이 살고 있다. PGM 선교단체에는 의료, 건축, 교육 전문의 선교팀, 플러머, 40개의 전문인 선교팀이 생겨서, 목회자가 갈 수 없는 선교지에 평신도들이 들어가 있다. 교수 선교사들이 특별히 많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예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교하기 전에 예배에 성공해야 선교도 성공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서 동력이 충전돼야 선교를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다. 예배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인생에 성공이 없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설교를 위해 토요일부터 기도해 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토요일 저녁이면 다리미로 돈을 다렸다. 주일예배 나오기 전에 은혜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옷 하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은혜를 쏟아지게 받는다. 덜렁덜렁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 없다."

"우리 신앙이 편안함에 안주하면 교회가 썩기 시작한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환난이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많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이 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생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며, "말씀과 기도 빼면 우리는 시체이고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큰 환란 속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호성기 목사는 필라안디옥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선교적 삶의 실천들을 나누며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시니어 건강칼럼 - 뇌자극과 치매

"치매로 이어지는 노년 우울증"



100세 시대, 노년을 우울증과 깜빡증으로 보내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한 깜빡증이 지속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우울증이다.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일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쉬워진다. "내가 왜 이걸 잊었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울감이 깊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의욕 상실, 무기력, 불면증, 식욕 저하 같은 우울증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다르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단순히 우울한 감정 상태로 생각하지만, 이는 엄연히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감기가 낫지 않으면 병원을 찾듯, 우울증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점점 더 악화된다.우울증은 단순한 슬픔과 다르게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는 뇌 질환이다. 그 때문에 "기운 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조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말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와 혼동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단순한 노화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문제

뇌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기억력과 집 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 이 커져 사회에서의 고립이 되기도 한다. 삶의 의욕이 떨어져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이 약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데, 노년의 낙상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우울증의 문제는 아주 많다.

노년기 우울증 치료, 약물만이 답이 아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가 사용되지만, 노년층은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항우울제는 혈압을 낮추거나 어지러움을 유발하며 골절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기억력 감퇴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식욕이 변화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욱이 노년층에서 많이 복용하는 혈압약,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한다. 이렇든 우울증 치료는 약물만이 답이 아니다.

100세 시대,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뇌 자극이 필수

우울증과 건망증이 깊어지면 일상에서 점점 활력을 잃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든다. 결국 신체 활동도 줄어들고,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신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이, 뇌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자극해야 기능이 유지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가 활발히 활동한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규칙적인 운동하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뇌 혈류를 증가시켜 신경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뇌를 쓰는 활동하기: 퍼즐, 바둑, 체스, 글쓰기 등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 뇌를 자극한다.
노년을 우울증과 깜빡증 없이, 활기차게 보내자
우울증과 깜빡증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다.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자. 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관리하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김새론 이어 휘성까지…
질타하던 사람들의 아이러니와 행복

배우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떠들썩했다.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질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새론 씨에게 공감과 동정을 보이며 '세상이 그녀에게 너무했다'고 말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듯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어쩌면 김새론 씨를 향했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요구가,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설 자리가 없게 만든 것 같다.

이런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행복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들은 이 '행복 교과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 교과서'를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참조할 내용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때 교육부 장관을 지낸 분이 주도해 심리학을 연구하는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행복 교과서를 통해 '행복의 10가지 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바라기는 호주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처럼 맹목적으로 유행하듯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학원에 보내 아카데믹한 배움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리를 생각하며 자녀 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한다. 여기서 10가지 원리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의 색깔은 저마다 다르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색깔을 찾아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행복의 색깔을 모방하며 그대로 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새론 씨 관련 보도 화면. ⓒSBS

요즘 한국 강남에 '7세 고시'가 있는데,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중3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본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 학원에 시험을 보러 오는 아이들이 1,400명이라고 한다. 그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고, 후일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믿고 있다.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 부산의 해운대까지 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찾아줘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 행복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신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

둘째,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감사는 만족하는 충만한 감정이고, 주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도 매일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하다 보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이미 내게 있는 좋은 것들에 시선이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가 감사해하고 자족하면 불안해하거나, 진취적이지 않다고 싫어하며 더 욕심을 내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감사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한 사람은 잠을 더 잘 자고 스트레스 수치가 더 낮으며 건강도 전반적으로 더 좋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삶의 당면 과제들을 잘 해내기 위해 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

셋째,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 미국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꿈을 명확하게 종이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이 3%였는데, 어른이 되었을때 나머지 아이들의 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물론 재정적 부분이 성공과 행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꿈이 있는 아이들은 삶의 도전에 물러서지 않고 도전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꿈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앞에서 이야기했듯 획일화된 꿈이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기 전부터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비전과 목표 또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아이들이 꿈을 갖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넷째,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특별한 것을 이루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중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게 만든다. 지인의 손주가 한국 서울대에 들어가서 가족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그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가기까지 아이 엄마는 하루도 빼지 않고 아이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공부했다.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아이가 사망했다. 아이는 나중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다 일생을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큰 것을 성취하고 행복을 얻으려면, 지금의 것을 많이 희생해야 한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먼 곳에서만 찾는 것은 어리석다.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행복해하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함께하며 누리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중간 이상 살다 보니, 행복은 작은 배려와 웃음,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에 있고 특별하거나 큰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오늘 집을 떠난 아들에게 '항상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아들도 '나도 항상 엄마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은 것에도 행복이 가득하다.

끝으로,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속담처럼,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와 아이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과 그럴 때 죄책을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녀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집을 떠나 친구랑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주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부모님들은 즐길 줄 몰랐다. 필자의 어머니만 해도 돈이 있으면 쓸 줄 모르시고, 손주들에게 주거나 타인에게 많이 베푸셨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녀들의 마음은 엄마가 자신을 위해 돈을 적절하게 잘 쓰기를 바라는데,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던 탓에 그렇게 하지 못셨다. 작은 일을 즐기기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도 연습할 기회를 주자.

이 외에 관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 몰입하면 행복하다, 행복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등의 원리가 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엄마들은 이 원리들을 자녀 양육에 적극 도입해 보길 권한다.

한국이 더 이상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의 원리를 적용해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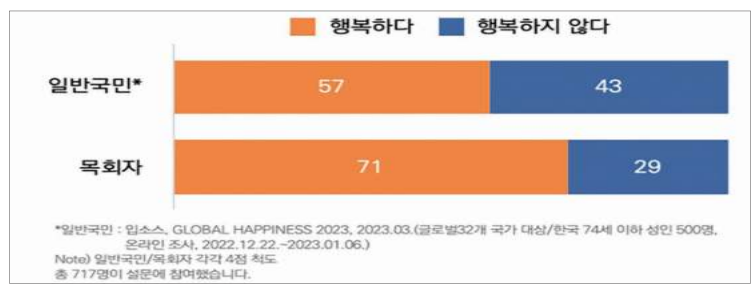
서미진 박사
호주기독교대학 부학장
호주 한인 생명의 전화 원장

목회자 10명 중 7명 "요즘 목회하며 행복"

목회자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일반 국민들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목회자 7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1%의 목회자가 '행복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고, '행복하지 않다'(별로+전혀)는 29%로 목회자 10명 중 7명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입소스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세계 행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행복하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이 57%였다. 목데연은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목회자가 느끼는 행복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행복도에 대한 일반 국민(위)과 목회자에 대한 조사 결과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S사랑하는
M마음으로
G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사순절에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이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칼럼니스트 닐 리스(Neil Rees)가 최근 '사순절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음은 해당 칼럼 내용.

구약성경에서의 금식

금식은 성경적이며, 성경에는 사람들이 금식한 기록이 많이 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금식했다(출 34:28). 한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삼상1 :1-20).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는 군대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다(대하 20:3).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대인 유배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다윗은 금식으로 자신을 낮추었다(시 35:13). 다니엘은 애도의 일환으로 3주 동안 금식을 했다(단 10:2). 에스더 여왕은 왕에게 다가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라고 촉구했다(에 4:16).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한 후, 사람들은 금식하고 회개의 의미로 베옷을 입었다(욘 3:5). 금식은 기도와 병행되었으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베옷을 입기도 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성서에서도 금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누가복음은 여선지자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한다(눅 2:37).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다(마 6:16-18).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할 것으로 생각하신 듯하다. 그는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는…"(마 6:16)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금식이 종교적 과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설명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으셨다(마 9:14). 예수님은 어떤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퇴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17:21).

초대교회의 금식

금식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관행으로 지켜졌다. 초대 기독교인 중 많은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었고 유대인 금식일을 지켰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했다(행 9:9).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할지 찾으면서 금식했다(행 13:1-2). 사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지도자들을 임명했다(행 14:23).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금식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앞서 준비 기간으로 금식하는 전통을 세웠다. 기도, 회개, 금식에 집중한 40일 기간이었다. 4세기 무렵, 사순절이 정상적인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40일 준비라는 개념은 매우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있었을 때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셨다(창 7:4). 나중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앉아 있었다(출 24:18). 나중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왕상 19:8). 사순절의 40일은 예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보내신 40일 금식에서 영감을 받았다(마 4:1-11; 막 1:13; 눅 4:1-13). 사순절을 라틴어로 '콰드라게시마'라고 하는데, 이는 40을 뜻하는 라틴어 '콰드라긴타'에서 유래했다.

개신교 전통에서의 금식

종교 개혁 이후, 사순절은 루터교와 성공회에서 관례로 유지됐으나 존 칼빈은 이를 거부했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유용한 훈련으로 여긴다. 존 웨슬리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일 뿐이며, 우리는 그분의 과분한 자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기꺼이 약속하셨다"고 했다. 1756년 2월 6일, 조지 3세는 프랑스의 침략 위협에 대응해 영국을 위한 국가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국을 구해 달라고 간청하자 교회는 가득 찼고, 예상했던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산상설교 연구'에서 "금식은 실제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목적을 위해 그 자체로 합법적인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썼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금식은 식욕에 대항하는 의지를 주장한다"고 썼다.

사순절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가?

사순절은 부활절보다 앞선다. 부활절은 보통 동서 기독교 달력에서 다른 주일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해에 동서 사순절은 겹치지 않지만, 겹칠 수는 있다. 2025년에는 동서 교회 모두 부활절 주일이 4월 20일이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도 전통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순절은 40일 연속이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에서 사순절의 여섯째 주일은 금식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순절은 46일 동안 40일이다.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에서 사순절은 2025년에는 3월 5일에 해당하는 재의 수요일에 시작해 4월 19일인 성목요일에 끝난다. 정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은 주일을 포함하고 성주간 전에 끝나므로 정교회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보다 이틀 일찍 깨끗한 월요일에 시작하는데, 2025년에는 3월 3일이다.

내려놓다

금식은 반드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래 사순절은 40일간의 금식 기간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고기나 동물성 제품은 먹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남은 계란과 지방을 사용하는 전통이 생겨났는데, 이는 사순절 동안 일반적으로 금지됐다. 이것들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팬케이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팬케이크 데이 또는 슈로브 화요일, 즉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인 재의 수요일이 됐다. 사순절은 우리 문화에 들어왔다. 모든 기독교인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순절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 비스킷, 또는 술을 포기한다. 사람들은 음식을 금식하는 대신 사치품이나 흡연, TV 시청, 소셜미디어 사용, 옷 쇼핑, 비디오 게임 또는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중독성 있는 습관을 포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미디어 또는 디지털 금식을 한다. 무언가 나쁜 것이 있다면 어차피 하지 말고 사순절을 위해서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사순절이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취하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40가지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성경 시리즈를 읽는 것을 선호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매일의 경건서를 읽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40일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같은 새로운 영적 훈련을 시작한다. 어떤 교회들은 사순절 동안 특별한 성경공부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순절은 새해 결심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을 이용해 집을 정리하거나 운동 루틴 또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차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 금식은 종종 이기적인 일을 멈추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혜진 기자

한기총 "WEA 리더십 의혹 여전… 총회 절대 불가"

"신학교수들과 포럼 개최하고 백서 통해 문제 알릴 것"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포럼과 백서를 통해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총회 개최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한기총은 12일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문제를 제기한 인사에 대해 WEA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기총은 "사임한 WEA 전 총무 토마스 쉬르마허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그와 관련한 지도부 인사들의 신학적, 신앙적 문제들로 인해 수년 전 WEA와의 관계를 이미 단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WEA의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저명한 신학교수들과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이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과 발제문 등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포럼에서는 WEA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조직신학적 관점에서의 이단성과 실천적·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경관 문제를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며, 발간될 자료를 전국 교회에 배포해 WEA의 실상을 한국교회에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WEA와 내부 지도자들 대한 신학적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WEA의 배도성으로 보여지는 요소 및 행위에 관한 백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과거에도 선배들이 개최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고 하는 오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기총은 WEA 주요 리더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다섯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나이지리아 북부 기독교학교 라마단 기간 동안 폐쇄돼



나이지리아 오그모보쇼에 위치한 트루워십퍼교회에서 열린 예배 도중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Gracious Adebayo/ Unsplash.com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 학교가 지역 주지사 명령에 따라 라마단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는 카노, 카치나, 바우치, 케비 주에서 일어났다. 이들 주의 주지사들은 종교적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가 라마단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독교 종교지도자, 교사 노조, 학생 대표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카치나의 종교경찰 책임자는 "폐쇄가 사립학교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불이행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안상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오픈도어 법률 전문가는 이 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권은 학생의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다. 이 조치는 종교적 소수자의 기본적 교육권과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만든 선례는 또한 위험하며 종교적 소수자의 다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나이지리아 학생 전국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Nigerian Students) 대변인인 샘슨 아데예미는 "당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종교적 의식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천주교 주교회의(Catholic Bishops' Conference)도 이를 비판하며, 이 규정은 나이지리아의 세속적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헌법은 나이지리아나 그 어떤 주도 공식적인 국교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CAN)의 다니엘 오코 대주교는 "이 결정은 나이지리아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라마단 기간에는 개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간표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급진파는 기독교 소수민족에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격, 살인, 납치 사건이 널리 퍼지고 있다.

폭력의 대부분을 자행하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슬람 단체인 '보코하람'의 이름은 "서양의 교육은 금지되어 있다"로 번역될 수 있다.

이미경 기자

이스라엘, 공습 재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중단은 사형선고"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 직원이 가자지구 북부의 무너진 건물 사이를 살피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110만여 명의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전쟁의 위협에 직면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원 중단과 적대 행위 재개는 가자지구 아동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6주간의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공습을 재개하면서, 가자지구 아동들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가자지구 아동들은 폭탄과 총알, 굶주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됐다. 이는 17개월에 걸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라마단을 앞두고 지원이 막히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 세이브더칠드런 직원은 칸유니스와 데이르 알발라 시장에서 하루 만에 물품이 바닥나고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고 보고했다.

아마드 알헨다위 세이브더칠드런 중동 지역 사무소장은 "휴전으로 인한 짧은 휴식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비하면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과 아동의 생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은 정치적 수단으로 무시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만 7,800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했으며,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알헨다위 사무소장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은 휴전 협정 이전처럼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재난 속 아동을 돕기 위해 '세이브원(SAVE ONE)'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후원금은 긴급구호 아동기금으로 사용되며, 후원자에게는 인도적지원 전문가와 연결된 모습을 상징하는 팔찌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 내 세이브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2세 기독교 소녀, 강제 개종 결혼 후 2개월 만에 부모 품으로



사바 샤피크(사진 왼쪽).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개월 전 무슬림 이웃에게 납치돼 강제로 이슬람 개종을 당하고 결혼을 강요받았던 12세 기독교 소녀가 지난주 부모와 재회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당사자인 사바 샤피크는 지난 1월 5일,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 칸토먼트 지역의 월튼 모델 콜로니 2구역(Walton Model Colony No. 2)에 위치한 자택 밖에서 무함마드 알리에게 납치됐다고 밝혔다. 알리는 그녀를 펀자브주의 시알코트로 데려가 가짜 종교 개종 및 결혼 증명서를 마련한 뒤, 신드주의 샤히드 베나지라바드로 이동했다. 이후 현지 경찰은 지난 5일 샤히드 베나지라바드의 한 외딴 마을에서 급습 작전을 펼쳐 사바를 구출하고 알리를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 날 사바 샤피크를 라호르로 데려왔다.

사바의 어머니 라킬 샤피크는 "오랜만에 딸을 안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남편과 나는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바는 "알리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납치된 날 그는 나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시장에 함께 가자고 했고, 이후 집에 가야 한다고 했으나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버스에 태웠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시알코트에서 한 성직자가 나이 18세로 기재된 가짜 개종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알리의 강요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개종 및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촬영해야 했다고 밝혔다.사바는 "알리는 나를 샤히드 베나지라바드의 친척 마을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나쁜 짓을 했고, 내가 부모를 보고 싶어하면 폭력을 가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방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CDI는 이번 구조 작전이 기독교 법률 지원 단체인 '하즈 파키스탄(HARDS Pakistan)'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단체의 소하일 하빌 이사는 "우리는 신드주를 관할하는 파키스탄 인민당의 지도부가 사바의 구출을 도운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바의 가족 변호인 측은 현재 납치 혐의 외에도 강간, 아동 결혼 및 기타 범죄 혐의 추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 나폴레옹 카윰은 "알리는 처음엔 성범죄를 부인하며 자신이 '성불구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중 결국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녀들이 선물이나 거짓된 사랑의 약속에 속아 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I는 파키스탄에서 매년 최대 1,000명의 소수 종교 소녀들이 강제 개종 및 결혼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시리아서 기독교인 포함 1,000여 명 희생돼



반군과 교전이 벌어진 시리아 한 지역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최악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며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이 가운데 알라위파와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종교 공동체가 주요 표적이 됐다고 인권 단체들이 경고했다고 밝혔다.

영국 GB뉴스에 따르면, 이번 폭력 사태는 시리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알라위파와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폭력 사태는 지난주 라타키아 인근에서 아사드 충성파 무장 세력이 보안 순찰대를 기습한 사건 이후 급격히 확산됐다. 이에 시리아 임시정부와 연계된 이슬람주의 세력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유혈 사태가 심화됐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희생자 1,000여 명 중 745명은 민간인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총격으로 사망했다. 나머지는 보안군이나 무장 세력으로 분류됐다.

"종파적 학살" …기독교 공동체도 피해

CP는 목격자들과 지역 감시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종파적 학살"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OHR의 라미 압둘라흐만 소장은 "이번 폭력의 목적은 알라위파 가정을 강제로 내쫓는 데 있다"며, 자블레와 바니야스 지역에서 가옥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지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과 보고서에는 집단 매장지, 결박된 시신, 파괴된 마을 등의 참혹한 장면이 담겨 있다. 한 사례에서는 보안 작전 중 알라위파 민간인 69명이 처형됐다는 보고도 나왔다. 현재 수천 명의 알라위파와 기독교인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일부는 라타키아에 위치한 러시아군 기지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시리아 내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아사드 정권과 연계된 존재로 간주하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슬람주의 정부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번 공격에서 정확히 몇 명의 기독교인이 희생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 "즉각적인 폭력 중단 촉구"

CP는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멜카이트 그리스 가톨릭교회 총대주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이 침입당하고, 신성한 공간이 짓밟혔으며, 재산이 약탈당하는 등 시리아 국민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반영하는 장면들이다. 우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보복과 배제를 넘어 평등한 시민권과 진정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 건설을 위한 화해의 조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美 존 맥아더 목사 7주간 입원 후 “마지막 단계에 있다”



2022년 3월 9일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가 쉐퍼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 Shepherdsconference

투병 중인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가 목자 컨퍼런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병원에서 7주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선밸리에 소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맥아더 목사는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기력이 약해졌지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참석한 모든 분들께 은총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진짜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가 바랐던 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저는 기분이 좋다. 병원에 7주간 입원하면서 힘을 많이 잃었을 뿐이다... 물리 치료사와 트레이너를 만나고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또한 지지자들에게 그들의 기도와 충실함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저는 제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촛불의 짧은 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과 이 사역의 세월 동안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했다.

심장과 폐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맥아더 목사는 오랫동안 설교 강단에 서지 못했다. 지난해 그는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심장 수술 3회와 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했지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추가적인 의학적 합병증으로 인해 병원에 더 오래 머물렀지만, 치료를 받기 전 잠시 교회에 들렀다. 올해 초 장기 입원 후 1월에 호흡곤란이 생겨 추가 치료를 받았다. 맥아더 그레이스 투 유(MacArthur’s Grace to You) 사역 대표 필 존슨은 당시 맥아더 목사가 지속적인 검사와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맥아더 목사 상태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존슨은 또한 맥아더 목사의 퇴원 날짜에 대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월 교회 지도자는 맥아더 목사가 퇴원했다고 확인했고,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권고했다. 맥아더 목사는 1969년부터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이끌었다.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해 그는 수천 건의 설교를 전하고, 책을 저술했으며,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인 청중에게 다가갔다.

이미경 기자

북한인권 단체, 젤렌스키 대통령에 북한군 포로 한국행 허용 촉구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SecurSerUkraine)

북한인권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등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 북한 내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들은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만큼,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귀순하는 계기가 되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 병사들은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쟁 장기화와 확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협약 제45조는 민간인이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제5조 제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 소식이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남북한 간 예상치 못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권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등 다수의 북한인권 단체가 참여했다.

홍은혜 기자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보나뮤직 동요대회 위너 콘서트 성료

보나뮤직(대표 이혜자)은 지난 3월 8일(토) 오후 4시 미주 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2025 보나뮤직 동요대회 위너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보나뮤직 한국 동요대회'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로, 영엔젤스 합창단과 보첼레스티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했다.

김종숙(보나뮤직 디렉터)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 1부 순서는 서채리(Crestview Preparatory School 1학년)의 '섬집아이', 심재희(Brightwood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의 '다섯글자 예쁜 말', 김지호(Holly Avenue elementary School 4학년)의 '함께 걸어 좋은 길' 공연에 이어, 독창 16명, 중창 2팀의 공연이 있었다.

2부 순서에서는 동요대회 전체 대상을 수상한 오윤서 어린이(Polytecnic School 6학년)의 '윷놀이', 전체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한희 어린이(Monte Vista elementary)의 '가을길' 앵콜이 있었다.

특별 순서로 보첼레스티 어린이 합창단의 '초가삼간', '고향의 봄', 영엔젤스합창단의 동요 메들리 공연이 이어졌으며, 어린이들을 지도해 온 성악가들(소프라노 글로리아 정안, 지경, 김종숙, 에스더 김,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조이 김, 테너 양두석, 김좌진)이 '낮에 나온 반달', '얼룩 송아지', '나란히' 등 동요를 불렀다.

관객들의 호응도 뜨거워 끊이지 않는 박수 소리와 환성이 이어졌다.

음악회가 저물어가며 출연자와 객석의 모든 분들이 함께 '꽃밭에서', '섬집아기', '둥글게 둥글게'를 율동도 하며 신나게 마무리 하며 아쉬움을 남기며 제2회 보나뮤직 동요대회를 기약했다.

보나뮤직 이혜자 대표는 "한국 문화의 얼을 이어가고자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온 한국동요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담은 노랫말 즉 동시에 곡을 붙인 노래이며 고운 심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며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갈 내일의 꿈나무들의 노래다"라며,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며 이 어린이들이 한글로 된 노래를 익히며 마음속에 스며든 한국문화는 영원히 그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대회를 개최한 의미를 나눴다.

보나뮤직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로 '제2회 보나뮤직 동요대회' 를 2025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미주 평안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윤준 기자

문의: 213-300-7214, bonaa-lee12@gmail.com



북가주 카멜장로교회, 브라이언 김 찬양집회

북가주 몬트레이 지역 카멜 장로교회에서 1년 전 시작된 K-Ministry가 어느덧 성장해 미국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왔다.

카멜 장로교회에서 3월 21부터 23일까지 3일간 브라이언 김(찬양 사역자) 초청 집회가 열린다.

3월 21(금) 저녁 7:30 한인 2세를 위한 말씀과 찬양 집회, 3월 22 일(토) 오후 4시는 한국어로 한인 대상으로 찬양집회, 오후 7시에는 미국 카멜 교회 성도들과 몬트레이 지역 성도들 위해 영어 집회로 진행되며, K-Ministry 디렉터 정은하 간사(피아니스트)의 키보드 반주와 함께, 브라이언 김이 여러 곡을 선보인다.

주일인 3월 23일에는 미국 카멜교회 성도들과 1부(오전 9:30), 2부(11시) 예배 때 찬양집회가 진행된다.

이 집회를 주최하는 카멜장로교회 한국어 사역 담당 정은하 간사는 "여러 지역에서 참석 문의가 있다. 찬양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 사회에도 큰 은혜 끼치리라 믿는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교회 한국어 사역팀에서는 10/24-10/25에 명설교가 노진준 목사님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s://www.carmelpres.org/k-ministry.



세입자 권익 보호 교육 워크샵

비영리단체 키와(한인타운노동연대)는 3월 13일(목) 오후 3시 동 단체 사무실에서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워크샵에서는 월세 인상, 퇴거 위협, 그리고 집 주인의 방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세입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법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세입자 권익 법률 단체의 대표가 워크샵에 참여하여 세입자의 구체적인 문제 케이스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조언도 제공했다.

키와는 앞으로 세입자 권익 워크샵을 이번 6월 초까지 정기적으로, 격 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워크샵은 무료이며, 우리말과 스패니쉬 통역을 제공한다.

워크샵이 열리는 키와 사무실 주소는 1053 S. New Hampshire Ave. LA CA 90006 이다.

향후 개최될 세입자 권리 보호 워크샵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27일 오후 6시
4월 10일 오후 3시
4월 24일 오후 6시
5월 8일 오후 3시
5월 22일 오후 6시
6월 6일 오후 3시

문의: housing@kiwa.org

키와(한인타운노동연대) 기사 제공

단신

▶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

주님세운교회가 3월 16일(주일) 오후 4시 박성규 원로 목사 추대 및 신용환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한다.

교회 주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감사한인교회 창립 42주년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3월 14일-15일(금-토) 교회 본당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진유철 목사.

14일(금) 저녁 7:30
15일(토) 오전 6시, 저녁 7:30

▶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 부흥집회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가 노진준 목사(순회 강사, 다니엘 기도회)를 강사로 50주년 부흥집회를 3월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연다.

▶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

LA 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가 제6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졸업한 분으로, PCA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한인 서남노회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국에서 5 년 이상 Full-Time 으로 목회 하신 분 (담임목회 경력 3 년 이상 선호)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및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www.inlandpca.com/)

진유철 칼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더불어 복음의 은혜는 죽은 뒤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자유로운 신앙의 나라에서 전도를 막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믿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인데, 디모데서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며 에베소교회 담임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전 1:18, 6:12)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꽃길을 가거나 유람선을 타는 휴양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싸움이나 악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말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악서사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선한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나이 80세의 노인이어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증거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죽음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작동하면 기쁨과 평안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사는 동안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세상의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고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교회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거짓 교훈, 즉 다른 복음을 좇음으로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훈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이 듣기 좋게 만든 가짜복음이었습니다.

요즘 혼탁한 세상을 보면 분명히 잘못한 일을 했음에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정당화하려고만 합니다. 뱀 같은 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심지어 정당화, 합리화를 지지할 수 있는 이론까지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사람을 속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른 역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더더욱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하시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사도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고 유언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이 작동되므로 끝까지 예수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정재우 칼럼

노년의 성취



정 재 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필자의 친구는 사회복지 전문가였다. 노년에 들어 화가로 변신했다. 국내와 해외를 다니며 작품을 출품하고 전시에 참여한다. 정말 부럽다. 그보다 더 부러운 건 아내와 합의하여 서울에서 남해로 주거를 옮겨 재미있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년에 이사를 감행하다니.. 그리 생각했다. 서울의 노인종합복지관장과 전문대학교 교수로 은퇴한 전문가요 지식인이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용단을 내렸다.

은퇴 후 처음 4년여 기간은 대청호 상류 청남대 가까운 가파른 산지를 개간해 포도농사에 도전했다가 정착을 못하고 결국 서울로 복귀했다. 농사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체득했다. 아내가 주말마다 서울에서 찾아와 살림을 도왔지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때에도 노년의 도전이 결코 나빠 보이진 않았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멀리 남해로 가더니 미루어 두었던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미술 동호회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다. 그 후 국내 미전에 도전해 입상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입상 작품 합동전시회에 참여한다고 초청을 받았다. 입상자 중 상위권은 개인전도 함께 열었다.

참 멋진 인생을 사는 친구다. 노년기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도전하고, 모험하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재미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이화여대 정신과 전문의 이근후 명예교수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딱 하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는 점이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럴듯한 자리라도 나는 명예보다는 즐거움, 책임보다는 재미를 택하면서 살기로 했다"

그는 76세에 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자로 졸업해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30년 넘게 네팔 의료 봉사를 하고, 40년 넘게 보육원 아이들을 돌본 이유는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는 게 이유의 전부였다.

〈백 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교수는 이 책에서 60대 중반의 일본 여성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 질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고, 반면에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공부를 시작한 사람, 취미활동을 계속한 사람,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했다.

설은주 은퇴교수는 〈멋지게 나이들기,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라는 저서에서 닭장에서 자란 독수리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닭처럼 자란 독수리는 날 생각이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노년을 우리 안에 있는 병리적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버려야 노년의 삶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필자의 친구는 노년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살았다. 새로운 도전으로 농사도 지어보았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땅에서 모험을 하고 있다. 재능을 찾아 그림을 배우며 재미있게 산다. 아내는 지역의 문화해설자로 함께 재미있게 산다. 남해에 푹 빠져 노년의 성취를 만끽하면서.

과연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아직 노년기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더라도 백세 인생을 살리모델링을 생각하자. 노년기 삶의 질을 고민해 보자. 노년은 자기 성취를 위한 연속과정이기에. 우린 예상 밖으로 훌쩍 노년기에 접어든다.

하늘바라기

고난 -김은주

고난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소망으로 인내할 뿐이다

고난이 고난인 것은
부활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은 온몸으로 노래한다
천국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날에
천군천사와 함께 화답할 것이다

김은주 시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자비량 선교를 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4년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강준민 칼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형성되어 외부로 서서히 드러납니다. 지혜 중의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씨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랍니다. 땅 속 어두운 곳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서서히 싹을 틔웁니다. 서서히 꽃망울을 맺은 다음에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줍니다. 나무도 서서히 자랍니다. 과일도 서서히 무르익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비밀입니다.

급성장보다 소중한 것은 꾸준한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물론 저도 한 때 급성장을 갈망했습니다. 속도와 크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속도와 크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초고속 시대에 속도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초고속은 아주 빠른 파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명은 서서히 자랍니다. 서서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벼락치기 공부한 경험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배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게 됩니다. 도박을 해서 얻게 된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복권 당첨을 해서 얻은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돈의 신비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가장 값진 돈입니다. 힘쓰고 땀 흘려가며 번 돈이 귀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함부로 낭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속 성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급히 보이기 위한 실력은 반짝이다 사라지는 반딧불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실력을 꾸준히 쌓을 줄 압니다. 실력을 감추는 실력은 아무나 갖출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이 실력을 감추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력을 감추었다가 가장 적합한 때 그 실력을 발휘할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무엇이든 통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통달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직은 인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기는 매력입니다. 매력은 끄는 힘입니다. 하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꽃처럼 시듭니다. 인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이라는 성품입니다. 인기를 지키는 그릇이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인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지혜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참된 성공, 지속적인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를 배웠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쌓은 그의 역량은 빛을 발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마했습니다.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또한 하프를 타며 노래하고, 시를 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양치는 태도를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시 78:70-72).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마했던 물맷돌 던지는 다윗의 실력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구제와 섬김과 봉사에 상을 주십니다.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은밀한 배움, 은밀한 훈련, 은밀한 성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꾸준함이 강렬함을 이깁니다. 쉽게 사그라지는 붉은 열정보다 은은히 오래가는 푸른 열정이 더 소중합니다. 강력한 노력은 쉽게 지칩니다. 반면에 꾸준한 노력이 늦은 것 같지만 갈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노력은 초반에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꾸준함은 서서히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작은 것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작지만 반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꾸준함이 좋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꾸준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꾸준한 사람이 시작한 일을 완수합니다. 꾸준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꾸준함의 비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작은 노력이 반복되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지만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십자가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지난 3월 5일 수요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기해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전통은 부활절 전 40일간의 금식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AD 325년 니케아 정경(The Canons of Nicaea in 325 AD)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전통이 부활절을 위해 특별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비록 성경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확실성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 없이는 복음을 논할 수 없기에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특히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D. Martyn Lloyd-Jones,1899-1981) 목사님은 갈 6:1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헛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은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한편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에서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에서는 단 한 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에서는 '가인의 예배'가드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이 설교가들의 공통점은 "십자가." 그것만이 기독교가 전해야 할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안타까워하며 쓴 고린도 전서 전반부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려 했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1:18)

이 십자가의 도를 찬양으로 잘 표현한 곡 중 하나는 조성은 작곡가가 쓴 "십자가" 라는 안템입니다. 그녀는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이야기 합니다.

전반부 고통과 수난의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을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단조를 사용하여 특유의 어둡고 호소력이 있는 모습으로 선율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무거운 발걸음은 리듬을 통해 연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 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장조로 변화시켜 짧게 표현하고는 간주에 멜로디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어 다시 고난의 길을 반복하여 단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짧은 간주에 이어 승리. 영광의 십자가를 장조로 사용하여 환희를 드러내며 역설의 십자가를 표현하며 종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Fanny J. Crosby, 1820-1915)가 가사를 쓰고 윌리엄 돈(William Howard Doane, 1832 - 1915)이 작곡한 찬송가 "십자가로 가까이(Near the Cross)"의 후렴구를 첨가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낭만주의 시대 찬송가의 흔한 은유입니다. 이 땅의 고통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피난처와 위안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역설의 축복을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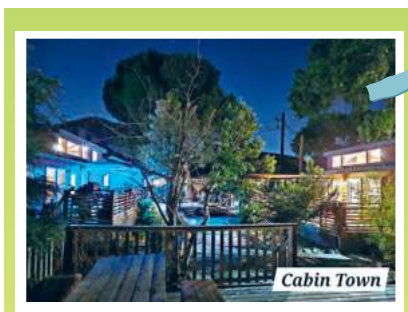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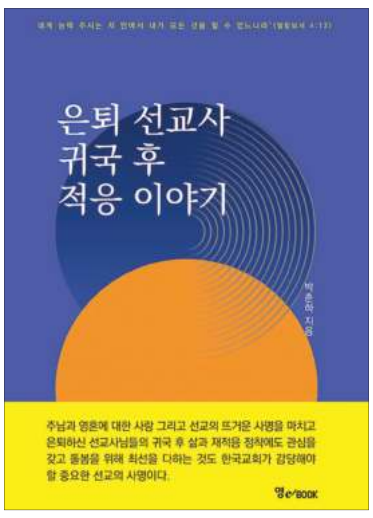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6명 심층 면접 결과

해외 선교사들은 은퇴 후 대한민국 생활에 잘 적응할까



은퇴 선교사 귀국 후
적응 이야기

박춘하 | 영eBOOK | e-book
10,000원

필자는 이스라엘에서 13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2021년 소속 선교회 본부의 멤버케어(member care) 사역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 후 본부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필자가 소속된 선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은퇴 선교사들이 정착하기 위해 오는 과정을 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이들의 정착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오랜 선교지에서의 삶으로 선교지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고 선교지로 갔을 때의 상황과는 달라진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필자는 은퇴 선교사들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노후 준비와 은퇴 후 귀국 적응 경험에 관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선물받지 않았더라면, 선물과 같은 이 책을 읽지 못했을 것 같다. 〈은퇴 선교사 귀국 후 적응 이야기〉 저자 박춘하 선교사는 남편 왕윤성 선교사와 함께 2008년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파송돼 2021년 귀국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아닉 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전도 사역에 헌신했다. 귀국 후에는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 및 마음 건강 상담 등으로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돕고 있다.

먼저 이 책은 박사 논문이다. 때문에 논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양식과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특성이 어떤 독자에게는 조금 딱딱하거나 지루하리라는 염려를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박춘하 선교사는 이 논문을 통해 6명의 은퇴 선교사를 심층 면접하고 그들의 간증과 삶을 담아냈다. 분명 논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료를 참고했지만, 그럼에도 감동이 있고 또 교훈이 있다.

박춘하 선교사는 기존에 이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차별화되는 이 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행 연구는 아직은 현직에 있으나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은퇴 준비를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이미 은퇴 후 고국에 귀국하여 살아가고 있는 은퇴 선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이들이 귀국 후 어떠한 적응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단 한 편도 진행되지 않았다(24쪽)".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말해 주듯, 실제로 '은퇴 선교사 귀국 후 적응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말이다. 저자가 후에 밝힌 것처럼 6명의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각각의 생생한 경험은 선교사들이 귀국 후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한다. 저자는 선행 연구에 관한 분석도 전문적으로 잘 해냈다. 그래서 독자가 어쩌면 생각해 보지 못했을 은퇴를 준비하는 선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또 선교단체와 파송 교회가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귀국 후 적응하는 과정과 기간에 관한 조사 또한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사실 국외로 파송된 선교사뿐 아니라 국내에서 평생을 헌신한 사역자들도 은퇴 후를 염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PK(Pastor's Kids)로 자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사역을 감당하는 부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까지 지장을 준다.

박 선교사가 담아낸 여섯 명의 선교사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소명을 받은 과정, 파송된 국가, 그곳에서 선교한 방식, 은퇴하여 돌아오게 된 계기, 돌아왔을 때 적응하면서 느낀 점 등이 각각 다르고 매우 실제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적응기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파송 교회가 선교단체 및 후원기관 등과 함께 선교사의 적응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제적으로는 거처 문제와 생활비 공급이 주요한 과제였다. 귀국했지만 선교지를 완전히 잊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역적 측면에서 은퇴 후 계속된 선교 사역과 귀국 후 교회에 정착해 은사에 따라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가 은퇴 후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공동체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닥터 토플은 한국에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로 22년간 봉사하고, 이후 케냐에서 70대에 은퇴할 때까지 선교에 헌신했다. 그 후 토플은 한 지역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바로 그 점이 국내 은퇴 후 적응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다. 이 책은 여러 이유로 일반 독자에게 관심 밖인 주제를 다룬다. 오히려 선교신학, 선교 역사, 선교에 관한 도전을 주는 유명인의 책들에 독자들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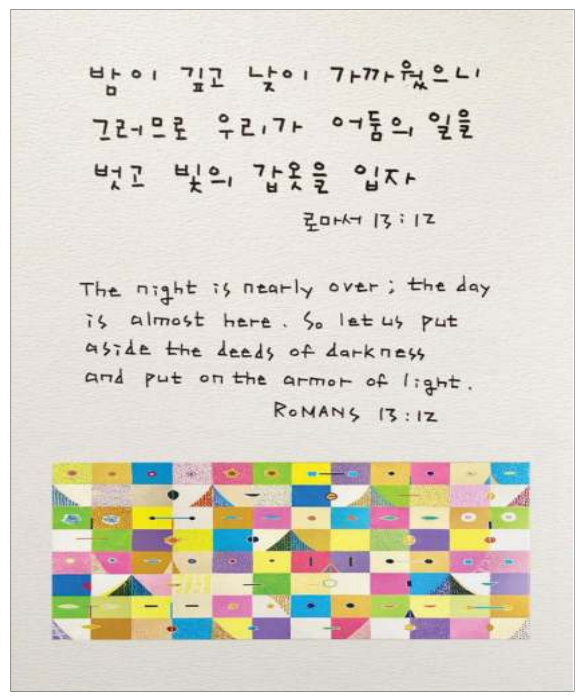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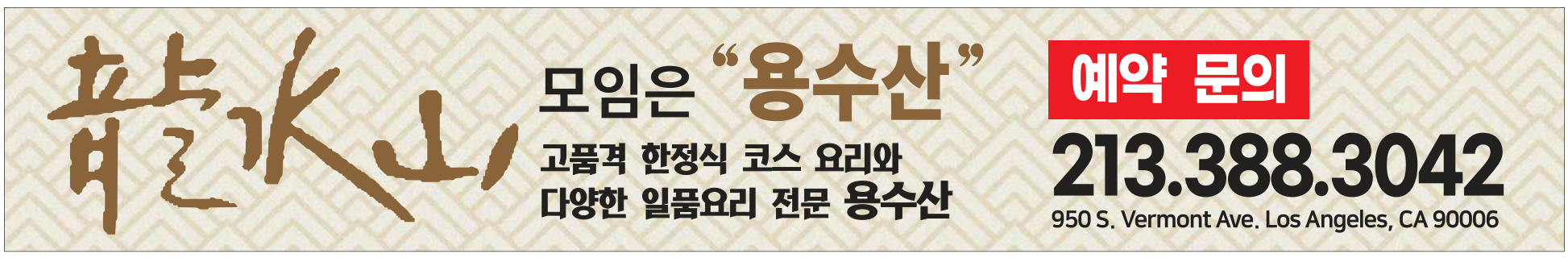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퇴 선교사 마을인 Atherton Baptist Homes

하지만 이 책이 선물처럼 여겨진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던 선교사가 은퇴하면 그걸로 관심이 모두 사라지고, 은퇴 후 쓸쓸히 귀국하여 적응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자원과 돌봄 등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책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목소리를 담아낸 귀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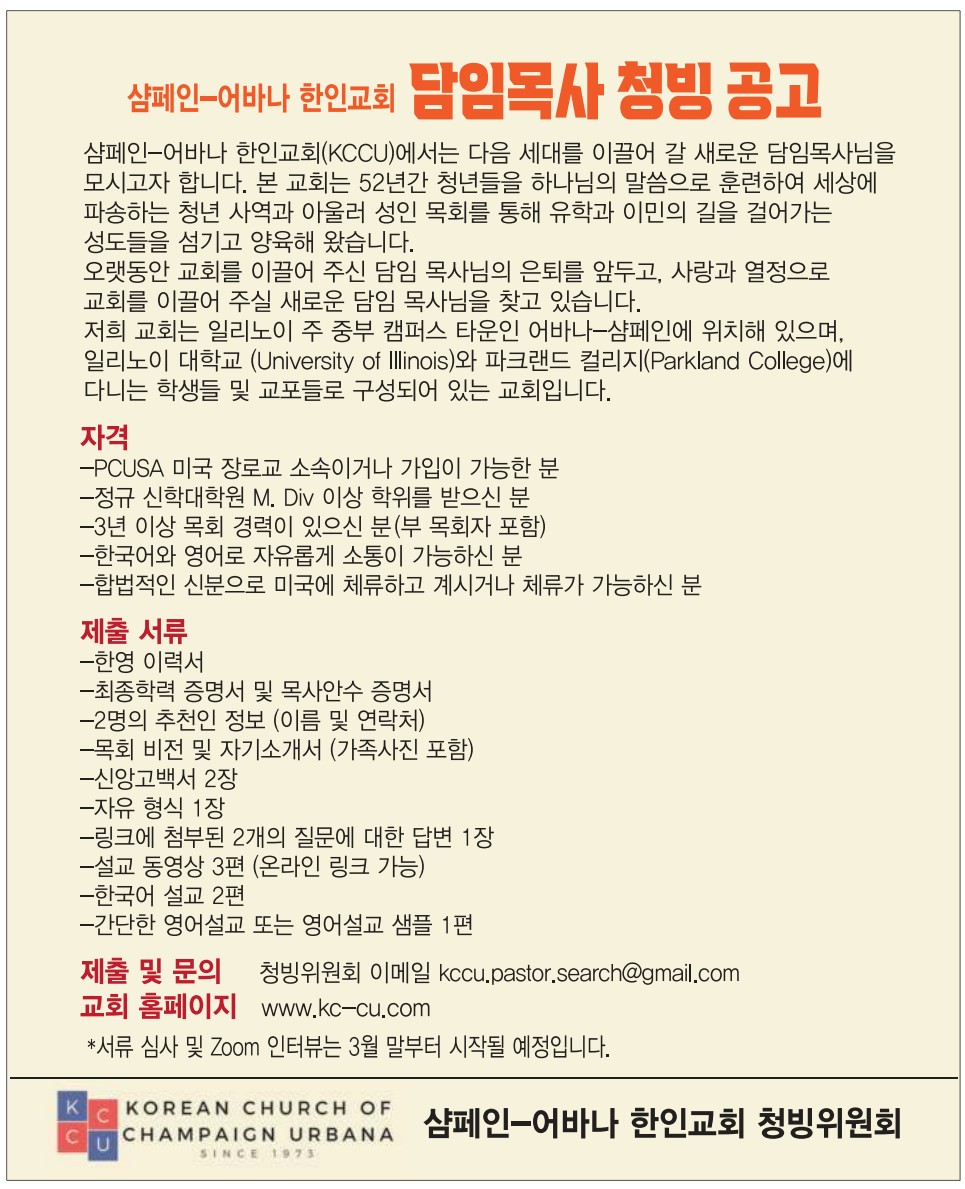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선의의 경쟁〉 (3)

〈선의의 경쟁〉 속 비뚤어진 신앙인들, 어긋난 가정교육 결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른 원인
종교성 부족 아니라 성적 타락
복음화 진행 결과 성도의 견인
기독교 교육 사회 전체에 효력
복음 바깥에서 도덕성 붕괴 시
복음화 자체 막혀 교육도 안돼



〈선의의 경쟁〉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드라마로서, 가장 각박한 입시경쟁이 펼쳐지는 채화여고 3학년 학생들 사이의 권력투쟁을 중심소재로 삼고 있다.

한국 교육체계와 기독교 교육 연구의 약점

드라마 〈선의의 경쟁〉은 왜곡된 양적 공리주의의 망령을 떨치지 못한 한국 공교육 체계의 참담한 인성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에 묘사된 학부모들의 학대에 가까운 학습 강요나 성적과 진학을 둘러싼 학생들 사이 과열된 경쟁 및 비열한 주도권 다툼은 여러 모로 심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잠식하는 이런 비인간적 행태는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재 한국 교육 체계는 드라마보다 조금 순화된 방식이기는 해도, 분명 학생들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나날이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북미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근대 교육체계가 정립된 한국에서 이처럼 인성교육이 붕괴되어 버린 이유는 일제 황민화 교육의 영향과 잔재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 성경과 신앙의 교육기회가 사라지고 오로지 세속적 배금주의와 물신숭배가 학생 개개인의 지고선이 되어버린 까닭에, 현재 자라나는 세대는 학교나 학원에서 도덕 실천에 필요한 자유의지 행사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한국 기독교계나 신학 연구자들도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있어 유효한 대안을 잘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교계 복음주의 신학의 중추를 이루는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적 약점이 반영돼 있다.

한국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매우 짧다. 따라서 우리 교육 현실 또한 과거 유럽이나 미국의 목회자, 신학 연구자들이 마주하던 것과는 그 양태나 성격이 크게 다르다.

서구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십수 세기에 걸친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배경 삼는 교육환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육에 관한 방침을 세울 때 항상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어린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염두에 두었다. 반면 한국의 교육환경은 유럽이나 미국만큼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익숙한 환경이 아니다. 한때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 넘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 중 대다수 신자들 삶의 방식이 기독교적으로 온전하게 성화되지는 못했다.

한국의 정신문화는 기본적으로 유교, 불교, 그리고 무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 문화는 인(仁)의 함양과 예(禮)의 실천에 중점을 둔 유교 전통에 지배적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시대 황민화 교육 영향으로 유교적 인성교육 전통이 붕괴되다시피 하고 그 자리에 패권주의와 적자생존 논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육 체계에서 도덕성과 사회성 함양 기능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즉 일제 문화 통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 교육체계는 유교적 인성교육 전통도, 기독교적 인성교육 전통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에서 조기 인성교육의 '인간학적' 필요성

그러므로 한국 공교육 체계가 내포한 도덕과 양심의 공백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인성교육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교육환경을 상대하는 서구 연구자들의 대안을 직접 대입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자유의지 훈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 교육 체계 역량은 제로베이스에 가깝다.

우리 교육 체계의 인성교육 결여에 대한 고민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 시절부터 선행학습과 경쟁우위 확보 목적의 지식주입 '산업' 양성을 그치고 이타심, 배려심, 그리고 도덕적 양심의 실천능력 함양에 목표를 둔 유소년 교육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한창 지식 및 기술 습득에 전념해야 하는 청소년기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결국 인성교육 핵심은 도덕실천에 필요한 자유의지 조기교육이다. 그렇지만 한국 복음주의 학계 기독교 교육 연구는 이러한 조기교육의 '인간학적' 필요성보다는 신앙 양심이 '은혜를 통해' 함양되는 방안의 논의에 천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은혜를 통해서'란 인간의 자주적인 노력과 훈련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견인의 역사에 의한 도덕성과 양심의 함양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 유아교육 연구자 정희정 교수의 최신 연구 '개혁주의 인간론에 기초한 유아기 습관형성교육의 정당성과 의미 고찰'(2024)과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연구자 김희영 교수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를 통해 본 기독교 성품교육 방향'(2024)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연구에 담긴 교육학적 통찰은 탁월하다. 특히 선의지를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기독교 신앙의 도덕적·교육학적 효력에 기댄 유소년과 청소년 교육의 길을 제시한 점에 대해 신학 연구자 입장에서 별다른 이견을 표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신앙을 통한 심성 변화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여타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약점이다. 한마디로 기독교 교육의 외연 확장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 현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방안이다. 도덕적 퇴락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복음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숭고한 도덕법칙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 이기적 욕망과 말초적 쾌락 충족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 역시 종교성 부족이 아니라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복음화가 진행되어야 성도의 견인을 체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로부터 기독교 교육의 힘이 사회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적 이치다. 그런데 복음 바깥에 있는 이방인 단계에서 이미 도덕성 교육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복음화 자체가 가로막히므로 그 다음 단계인 기독교 교육의 효력 역시 무산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독교 교육 연구와 실천에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 바깥의 유소년·청소년들에게까지 실질적인 도덕성 교육, 양심 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역량이다.

드라마 〈선의의 경쟁〉의 두 주인공 중 하나, 유제이(이혜리 분)가 '도덕적 일탈을 통해 하나님과 유의미한 교제를 한다는' 어긋난 심성을 갖게 된 것도 그 아버지 유태준(김태훈 분)의 교육 방침이 순전히 지식 습득 경쟁에서의 승리를 인생의 최고가치로 두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기초적 선의지 교육과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단지 교회 출석만으로 성화된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작중 유제이의 심성을 망가뜨려 놓았다. 이는 신앙 교육에서 인간의 선의지 훈련과 계발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믿음과 도덕 양면에서 완성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 완성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현실적 삶의 정황에 갇혀 있는 유한한 인간은 우선 보편적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초 훈련을 받고 스스로 도덕적 명령을 지켜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인간적' 혹은 '인간학적' 노력과 준비는 신앙을 통해 완성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덕, 아퀴나스가 명명한 '신학적 덕(theological virtues)', 즉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갖추기 위한 필수 예비단계다. 기독교 교육 연구자들과 공교육 담당자들이 이 예비 단계의 중요성을 알고 현재의 그릇된 교육 체계를 변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기독교인은 ‘딤미’ 될 수도”

황성준 한국보수주의학교(K-Con) 연구위원의 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는 걸까.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물었다고 한다.

“자네는 어떤 이유로 추운 날씨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자 청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대표적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도 “(우리나라) 전 영역에 국가를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처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와 메시지들을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회·공산주의 반대”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정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 있을까? 이런 이념이나 체제는 이미 과거에 무너진 것들이 아닌가? 황성준 한국보수주의학교(K-Con) 연구위원은 오히려 반문한다. 지금 시국에서 사회·공산주의화를 걱정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그는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시절 소위 ‘운동권’이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물들었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다고 한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에 힘입어 ‘보수주의자’가 되었지만, 과거 운동권의 주류 사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에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현재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맞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80년대 초중반 소위 운동권의 핵심사상은 사회주의였고, 후반부터는 이른바 ‘주사파’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체는 그러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이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단지 개인들에 불과했고 하나의 조직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정치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진출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황 위원은 말했다. 물론 지금 회자되는 ‘사회·공산주의’는 고전적 의미의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공공’ ‘공동체’ ‘사회’ ‘약자’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정’과 ‘성별’ 등의 전통적 의미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인데 그 사상가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김일성 만세’는 딱히 욕하지 않지만, ‘기독교인’은 경멸의 대상이다. 그만큼 이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에는 ‘딤미’라는 용어가 있다. 그 나라에 살면서도 기독교 등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들에게 예배와 같은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허락해주지만 ‘전도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황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마치 ‘딤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하나의 국교로서 그 지위를 누릴 것이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복음 전파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



황성준 한국보수주의학교(K-Con) 연구위원. 그는 “제가 대학에 다니던 80년대 초중반 소위 운동권의 핵심사상은 사회주의였고, 후반부터는 이른바 ‘주사파’가 주도권을 잡았다”며 “오늘날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체는 그러했다”고 했다.

“지금도 이전처럼 마음대로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황 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황 위원은 지금 시국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교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복지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그 체제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우리 민족에게 낯선 것이다. 만약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공산주의화가 되었을지 모른다고.

“대학생 때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고, 이 때문에 마치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된 것처럼 자만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식인이라는 자들 대부분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자신이 고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황 위원은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고 나약한 존재”라며 “나는 경험으로 또 신앙으로 이것을 고백한다”고 했다. 이 사회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날리는 그의 일침이다. 한편, 황 위원은 사회주의의 모순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지금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나왔고,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월간조선 기자, 미래한국 편집위원,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김진영 기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관련, 러시아 편에서 참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에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들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논평을 7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 한국으로 데려와야: 그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 북한으로 송환되면 해를 당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교회언론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것이 지난 2022년 2월 24일로, 무려 만 3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그 와중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군을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보내, 양국 전쟁의 희생물이 되게 했다”고 고발했다.



관련 보도 화면. ©SBS

교회언론회는 “북한군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줄도 모르고 상부의 명령에 따랐고, 전장(戰場)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개활지(開豁地) 전투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의 현장에 내몰려,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됐다”며 “그런 가운데 극히 일부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있다. 저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느냐, 다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조국으로 생각했던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또 국제 전쟁에 의미 없는 용병(傭兵)으로 끌려 나갔다가 사선(死線)을 넘은 병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마땅히 구해주어야 한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북녘에 태어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저들을 한국으로 군사적 조건 없이 안전하게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며 “포로로 잡히면 조국(북한 당국)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 자폭(自爆)을 실행한다는 북한 병사의 말은 큰 슬픔과 함께, 우리가 그들을 구해줘야 할 의무감을 고조시킨다”고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